

충남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전략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연구팀장

I. 충남 관광수요 변화 요인

•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객 수요 증가 변화

주5일 근무제가 관광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국관광연구원의 연구¹⁾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의 관광수요 증대효과는 향후 6년간 총 3억5백만명(연인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새로운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른 관광성향의 다양화 및 다변화

주 5일 근무제, 휴가 분산제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확대와 핵가족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새로운 소비계층의 출현 등의 사회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관광수요와 행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관광수요의 질적 변화로는 가족 중심, 주말·체험의 시간소비형, 문화·교양 자기개발형, 모험체험 참여형, 자연친화 및 건강 추구형, 저비용계획적 여행 등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나아가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생태관광, 자연밀착형 관광, 자연체험형 관광 등이 대안관광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한국관광연구원(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 국가 기간망확충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객 유치 촉진

고속도로의 연장과 국가간선도로의 확충은 경제 및 생활 활동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관광 시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전국 일일관광권 체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내 이동보다는 지역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는 접근이 힘들었던 관광지들이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의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안면도국제관광지 조성, 신도청의 건설 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할 것이다.

• 충남 지역적 관광수요 변화의 분석과 공급 대응전략 마련 필요

충남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이후인 2002년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태안 지역은 31.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 해수욕장의 이용객수도 2002년 경우 전년대비 17.2%, 2003년은 10.5%가 증가하였고, 관광기반산업의 숙박업과 음식점업은 고용규모면에서 음식점업 1,027명, 숙박업에서 14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이처럼 충청남도는 주5일근무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수와 관광활동, 이용관광지 등 관광수요에 변화가 이루어졌고,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 등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관광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의 관광환경변화 분석과 향후 변화전망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충남의 체계적인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수요의 분석을 통한 변화의 전망과 대응 전략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충남의 지역적 관광수요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에 대응한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3),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이 충남 서부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II. 충남 관광수요와 성향분석 및 전망

1. 관광수요 예측 방법

관광 수요예측은 수치적인 기술을 문제삼지 않고 주관적인 관점을 주로 이용하는 정성적 예측(질적 예측방법: Qualitative Methods)과 시계열자료를 연장하거나 예측을 위한 인과변수를 이용하는 계량적 예측방법(정량적 예측방법: Quantitative Methods)으로 대분할 수 있다.

특히, 정량적인 관광통계는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관광 수요·공급 및 행태 예측, 정책 방향 수립, 경영 의사결정 등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국내의 승인통계중 관광수요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실태조사와 각 시군 및 광역지자체의 통계연보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지방문객 보고통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량적인 관광통계분석에 있어 관광 수요량을 나타내는 개념으로는 방문객수와 관광총량의 개념이 있으며, 방문객수(visitors)는 관광활동을 위해 특정 관광지역에 도착하는 인원수(arrivals)를 의미하고, 관광총량(man/day)은 도착객수에 도착객의 평균체재일을 곱한 연인원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승인통계인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의 관광수요량 개념인 관광총량과 참가회수, 그리고 충남통계연보에서의 관광수요량 개념인 관광총량 개념을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충남관광수요 변화를 고찰하였다.

충남의 관광 수요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분석 방법 중 연도별 자료분석에 적합한 단변량 시계열예측모형 12개를 이용하였으며, 도출된 수요추정 모형 중 정확성지수(MAPE)가 가장 높은 모형을 예측모형으로 선정하였다.³⁾ 관광객의 수요변화를 추정하는 방법론은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하였다.

3) 충남 관광수요예측은 선형추세법, 평활법 및 박스-젠킨스의 ARIMA법 등으로, 가능한 분석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최종 모형선정에 이용된 12가지 시계열분석법은 Linear Trend Analysis, Simple Exponential Smoothing, Double(Brown) Exponential Smoothing, Linear(Holt) Exponential Smoothing, Damped Trend Exponential Smoothing, Random Walk with Drift, Log Linear Trend Analysis, Log Simple Exponential Smoothing, Log Double(Brown) Exponential Smoothing, Log Linear(Holt) Exponential Smoothing, Log Damped Trend Exponential Smoothing, Log Random Walk with Drift 등이다. 12개의 모형을 도출하는데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를 활용하였다.

2. 충남 관광수요와 성향분석

충남통계연보 자료를 근거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충남의 내·외국인 관광객수 총량을 분석한 결과, 충남의 총 관광객수는 1996년 39,502천명에서 2005년 85,318천명으로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변동은 동 기간(1996-2005) 중 홍성군이 1996년 102천명에서 2005년 2,323천명으로 (연평균 41.6%)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일부 시·군에 편중된 관광객 증가와 집중 현상

충남의 시·군 중에서 전체 연평균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지역은 홍성(41.6%), 청양(22.8%), 연기(22.0%), 서천(18.8), 서산(15.5%), 예산(12.5%), 금산(12.5%), 태안(12.2%), 당진(11.7%)의 9개 시·군이며, 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은 아산(0.07%), 논산·계룡(1.2%), 공주(3.7%), 천안(5.1%), 보령(5.7%) 및 부여(7.8%)의 6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관광객수 총량에서는 1996년에는 보령시가 11,618천명으로 충남에서 가장 많았으나, 2005년에는 태안군이 19,689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충남의 관광객수 변화 추이

년도	충남(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1996	39,501,663	2,039,653	2,585,956	11,618,260	6,719,900	664,402	239,431	561,238
2000	56,796,029	2,816,649	3,413,905	15,534,452	6,792,242	1,582,859	149,744	985,390
2005	85,318,509	3,184,076	3,572,502	19,156,053	6,762,171	2,421,684	265,361	1,616,520
연평균증가율	8.9	5.1	3.7	5.7	0.07	15.5	1.2	12.5

년도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1996	139,250	1,478,576	2,152,350	190,930	101,863	2,355,160	7,004,840	1,650,054
2000	1,189,710	1,429,025	3,255,247	462,757	1,115,944	5,484,543	9,791,603	2,791,959
2005	835,673	2,904,538	10,133,478	1,210,908	2,323,354	6,792,356	19,689,400	4,450,435
연평균증가율	22.0	7.8	18.8	22.8	41.6	12.5	12.2	11.7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1996-2004년) 및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5년)

•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지역 관광객 수요 급증

2001년 12월 21일 서해안고속도로 전구간 개통과 2004년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2002년에 서해안지역 관련 시군 관광객수 총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천안, 아산 및 부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와 군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미 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는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점진적 수요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충남 관광객수 전국 6위, 수도권에서 숙박여행지로 방문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조사부문별 결과를 각 시도별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충남의 관광성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박관광과 당일관광의 시도별 비교에서, 전국민이 선택하는 국내 여행 방문지에서 충청남도는 8.8%를 차지하여 경기(15.7%), 강원(11.2%), 경남(10.4%), 전남(9.5%), 경북(9.5%)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도별 방문지에서 충청남도를 방문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37.1%), 대전(34.0%), 경기(12.8%), 충북(10.4%), 인천(9.2%) 등의 순이었다. 이들중 숙박여행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28.9%)과 대전(27.3%)을 제외하고, 인천(13.2%), 경기(12.8%), 서울(11.8%) 등으로 수도권에서 충남을 주요 숙박여행지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충남을 방문하여 여행하는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2005년 충남 방문 여행객은 숙박여행을 주말(상반기:67.3%, 하반기:45.4%)에 가장 많이 다녔으며, 이어서 상반기는 주중(25.8%), 하반기는 휴가/방학(3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일여행을 다니는 경우에는 충남 방문 여행객은 주말(상반기: 62.2%, 하반기: 62.7%)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친지와 5명이내 1박 2일 중심의 관광패턴

충남을 방문하는 여행동반자 유형 분석 결과, 2005년 충남 방문 여행객은 숙박여행을 가족/친지(상반기:41.7%, 하반기:55.7%)와 가장 많이 동행하였으며, 이어서 친구/연인(상반

4) 한국관광공사(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기:39.4%, 하반기:36.5%)의 순이었다. 당일여행의 경우도 충남 방문 여행객은 가족/친지(상반기: 40.5%, 하반기: 42.3%)와 함께 여행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객은 숙박여행 시 상반기는 2-3명(35.3%), 하반기는 4-5명(38.0%)과 동행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상반기는 4-5명(27.2%), 하반기는 2-3명(28.6%)의 순이었다. 혼자서 숙박여행을 가는 비율은 상/하반기 각각 5% 이하이었다. 당일여행의 경우에는 상반기는 2-3명(32.0%), 하반기는 4-5명(33.2%)이 함께 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충남 여행 체류기간 및 소요시간 분석에서, 충남 방문 여행객은 숙박여행 시 1박 2일(상반기 : 76.6%, 하반기 : 62.2%) 동안 체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2박 3일(상반기 : 18.3%, 하반기 : 29.4%) 순이었다. 평균체류기간은 상반기는 2.3일, 하반기는 2.4일이었다.

당일여행시 소요 시간으로 10-11시간(상반기 : 27.4%, 하반기 : 26.3%)이 가장 많았고, 평균소요시간은 상반기가 9.5시간, 하반기는 10.4시간 이었다.

• 관람형 정적 관광활동과 자가용을 이용한 저가형 숙박시설 이용

충남 숙박여행 시 충남 방문 여행객의 주 활동으로는 상하반기 모두 자연 명승/풍경 감상, 휴식/휴양, 수영/해변활동, 유흥/오락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당일여행의 경우 상반기는 자연 명승/풍경 감상, 휴식/휴양, 유흥/오락, 하반기에는 자연 명승/풍경 감상, 휴식/휴양, 수영/해변활동 등의 순이었다.

2005년 충남 방문 여행객의 숙박장소로 상반기는 모텔/여관, 하반기는 펜션이 가장 높고, 이어서 상반기는 민박, 펜션 등의 순이며, 하반기는 민박, 모텔/여관 등의 순이었다. 이를 볼 때, 민박과 모텔/여관, 펜션이 충남 방문 시 여행객의 주요 숙박 장소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충남 방문 여행객은 숙박여행 시 자가차량(상반기 : 76.9%, 하반기 : 85.8%)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일여행의 경우 자가차량(상반기 : 72.9%, 하반기 : 73.0%) 및 전세/관광버스(상반기 : 17.5%, 하반기 : 19.2%) 이용 비율이 높았다.

3. 충남 관광수요 변화의 예측 및 전망

• 당일관광 보다는 숙박관광수요 증가 예상

전국대비 충남의 참가인수 점유율은 숙박관광이 2005년 9.8%에서 2010년 11.9%, 2015년 12.8% 및 2020년 12.9%까지 증가되며, 당일관광은 2005년 8.0% 수준에서 2010년 10.9%, 2015년 11.2%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9.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한 국민 관광수요 변화 예측

(단위 : 천명, %)

구분		년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참가인수 (명/일)	전 국	숙박	240,187	325,258	410,329	495,400
		당일	148,650	160,437	172,224	184,011
		소계	388,837	485,695	582,553	679,411
	충 남 점유율	숙박	9.8	11.9	12.8	12.9
		당일	8.0	10.9	11.2	9.7

숙박/당일 관광객 점유율 증가에서 충남지역은 당일관광객보다 숙박관광객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숙박관광객의 경우는 2005년의 강원도 점유율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숙박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 공급을 시급히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단일 목적지형 체류형 관광행태로 변화

충남 점유율을 활용하여 충남의 관광객수에 대한 숙박관광객수와 당일관광객수 변화추이를 계산한 결과, 2005년 숙박관광객 56,682천명, 당일관광객 28,636천명에서 2015년에는 숙박관광객 81,073천명 및 당일관광객 32,911천명, 그리고 2020년에는 숙박관광객 96,825천명 및 당일관광객 38,854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숙박관광객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관광객수 개념과 충남통계연보상의 관광객수를 비교할 경우,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일 평균 목적지수는 2005년 2.4곳의 관광지 방문에서 2010년 1.7

곳과 2015년에 1.6곳, 2020년 1.6곳의 관광지 방문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의 관광이 점진적으로 선진국형 단일목적지 체류형 관광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충남 총 여행비용은 전국 12.4% 점유 예상**

충남지역 전체의 관광비용 총량 즉, 여행비용 측면에서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는 전국 14.5조 원 대비 충남 1.35조원 규모에서 2010년 전국 19.2조원 대비 충남 2.2조원, 2015년 전국 23.9조 원 대비 충남 2.9조원, 그리고 2020년에는 전국 28.5조원 대비 충남 3.5조원으로 나타나 전국대비 충남은 2020년에 12.4% 수준까지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충남 관광수요 변화 전망

(단위 : 천명, 지점)

구분		년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관광객수 (명/지점)	충남	숙박	56,682	65,992	81,073	96,825
		당일	28,636	28,223	32,911	38,854
		소계	85,318	94,215	113,984,530	135,679
충남 관광 1일당 목적지수(지점)		2.4	1.7	1.6	1.6	
참가인수 (명)	충남	숙박	3,834	4,749	5,172	5,253
		당일	3,129	4,484	4,946	4,462
		소계	6,963	9,233	10,118	9,715
총 여행비용 (백만원)	충남	숙박	1,014,084	1,791,759	2,534,679	3,166,602
		당일	333,066	443,150	451,211	373,175
		소계	1,347,150	2,234,909	2,985,890	3,539,777
	충남점유율	9.3	11.6	12.5	12.4	

Ⅲ. 충남 관광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과제

1.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패턴의 변화

-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권에 관광객 편중 해소

충청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권역별로 구분해 보면,⁵⁾ 해양관광권이 57.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내포문화관광권 18.7%, 역사온천관광권 11.7%, 백제금강문화관광권 7.9%, 대도시 근교권 2.9%로서 해양관광권에 관광객이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등을 찾는 관광객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패턴을 각 지역으로 고르게 확산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 계절적 관광패턴에 적합한 관광공간과 프로그램 제공

- 하절기 해수욕장 중심의 계절적 집중 현상 극복

충청남도의 계절별 이용성향에서는 봄 16.3%, 여름 52.1%, 가을 19.9%, 겨울 11.7%로 관광객수의 이용비율은 겨울을 제외하고, 행락철인 봄과 가을보다는 휴가철인 여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계절적인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로서 관광자원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관광객들이 하절기를 이용하는 관광은 주로 해수욕장 중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85,318천명의 관광객중 해수욕장 이용객이 27,058천명으로 31.7%가 해수욕장에 집중되고 있다. 해수욕장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에 총 36개소가 분포하며, 태안군과 보령시가 가장 많이 방문하고, 홍성군은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중되게 방문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5) 권역별 구분은 충청남도 3차종합계획(변경)과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적용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충청남도는 3계절 이용형태의 관광목적지이며, 계절별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공간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코스과 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해수욕장 분포 현황

시군별	개소수(개소)	2005년 이용객수(명)	비 고
계	36	27,058,585	-
보령시	5	11,999,945	대천, 무창포, 원산도, 호도, 용두
서천군	1	2,917,000	춘장대
태안군	29	12,021,940	만리포, 몽산포, 연포, 삼봉, 꽃지, 백사장, 학암포, 구레포, 청포대, 신두리 등 29개소
당진군	1	119,700	난지도

자료 : 충청남도(2006), 도정백서

3. 새로운 관광활동 기회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

• 가족지향형 체험관광과 동적 관광활동 증대에 대비

관광자원과 시설은 총량적인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형태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자원과 시설의 공급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각 지역들이 농어촌체험관광과 자연휴양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하는것처럼 이들 수요자 변화를 충족시키는 관광활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향후에는 개성적인 관광활동의 추구하고 가족지향형으로의 관광활동 변화로 독창성 있는 저가형·가족형·체험형 관광개발, 특히 레포츠형과 같은 동적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관광성향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충남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대부분 주말이나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며, 1박2일의 숙박이 주류를 이루면서 자연명승 관람(1위), 휴양과 휴식(2위), 수영과 해변활동(3위) 등 관람형의 정적인 관광활동이 주요 관광활동인 것으로 나타나 동적인 관광활동 증가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 단일목적 체류관광지에서 다양한 관광활동과 관광편의시설 필요

충남의 관광활동은 점차 관광지를 방문하는 목적지수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9년에는 충남 관광시 1일당 3.7지점을 방문하던 것이 2005년에는 2.4지점을 방문하였고, 2020년에는 1.6지점으로 거의 한 목적지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관광활동의 수요와 방문목적수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목적지 내에서 새로운 관광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의 개발은 물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관광코스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관광지별로는 관광객들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관광편의시설도 충분히 확충해야할 것이다.

〈표 5〉 충청남도 관광시 1일당 목적지수 변화

구 분	1999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충남 관광시 1일당 목적지수	3.7	2.3	2.3	2.4	1.7	1.6	1.6

4. 내외국인을 위한 관광시설과 공간 개발의 효율적 추진

• 차별화된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충 요구

현재 많은 관광공간과 시설들이 지정되어 왔으나 실제 조성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충남에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장소로 민박과 펜션, 모텔과 여관이 이용되고 있어 차별화되면서 고급화된 숙박시설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용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자가차량을 이용하나 약간의 관광객이 전세와 관광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교통편의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해안 해안과 해양관광자원 활용의 극대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집중되는 서해안권의 관광자원 유형별로 자연휴양형, 레저스포츠형, 위락형, 해양형 관광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해안과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해양관광 참여인구 및 전망

(단위 : 천명)

구 분	1997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10년
해양 관광 참여인구	74,143	72,129	84,404	92,060	116,431
해 수 욕	56,579	55,042	63,643	68,741	83,080
바 다 낚 시	5,200	5,059	5,849	65,78	8,658
해양스포츠	1,034	1,006	1,574	2,394	6,368
해양연관형	11,330	11,022	13,338	14,347	18,325

자료: 해양수산부(200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5. 다양한 관광계층을 위한 관광기반구축과 관광기회 확대

• 청·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의 육성

충남 관광환경의 큰 변화에 따른 지역 관광객의 증감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근교권이 14.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른 관광활동의 확대는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관광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득계층에 따른 관광활동의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가중이 우려된다.⁶⁾

따라서 주5일 근무제와 노령화인구의 증가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도 기존의 다양한 관광객들을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공간과 시설, 관광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6) 윤양수·김의식(2002), 레저형태 변화와 여가공간 조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표 7〉 충청남도 관광권역별 관광객 증감을 분석

구분	1996년 관광객수(명)	2005년 관광객수(명)	연평균증가율(%)
해양관광권	20,755,450	48,978,931	10.0
백제금강문화관광권	4,494,893	7,953,309	6.5
내포문화관광권	4,771,279	15,987,829	14.4
역사온천관광권	8,759,553	9,946,247	1.4
대도시근교권	700,488	2,452,193	14.9
계	39,481,663	85,318,509	8.9

6. 국내외의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정책 추진

• 지역특성과 수요변화에 적합한 관광전략과 홍보·마케팅 실시

국내외의 관광환경변화, 충청남도의 고속도로와 철도, 고속간선망의 구축 등의 지역변화 여건 뿐만아니라 관광객들의 소비자 개인특성과 관광패턴의 변화는 복합적으로 관광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충남의 관광수요 특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속에서 관광객의 방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주5일근무제의 영향을 받는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권, 대도시근교권 등은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반면, 역사온천관광권은 고속철도의 개통이 이루어졌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중심의 가족형 체험중심의 관광성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관광객의 증가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및 마케팅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오늘날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등의 변화로 관광행태가 관광시설 이용에서 자연회귀, 모험추구,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추구형 관광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 기간망과 대규모 관광사업이 확충됨에 따라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연장과 국가간선도로의 확충은 경제 및 생활 활동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관광지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전국 일일관광권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에서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관광객들이 서해안 관광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개통된 이후 천안시에는 전철을 이용한 수도권 노년층의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안면도국제관광지 조성, 신도청의 건설 등 관광객 증가를 예상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큰 변화를 예상 할 수 있다. 이러한 호재를 십분 활용하고 관광수요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은 체계적인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관광충남”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기(2000), “국민 국내관광 이동통계 개선방안”, 한국관광연구원.
김상태·신용석·박석희·박상곤(2004), “관광통계 수요조사 및 관리운영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류광훈·심원섭(2002), “관광통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관광부(2004), 「관광지 이용객 실측·집계 방법개선 및 실태조사」.
이강욱·권영인(2004), “지역방문객 관광통계 생산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광익(1999), “관광수요예측 및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한국관광연구원.
통계청홈페이지(2006), 「<http://www.nosgo.kr>」.
최영문·김사현(1998), “변량 시계열 관광수요 예측모형의 적정성 비교평가”,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21(2).
충청남도(각년도), 「충남통계연보」.
한국관광공사(1999, 2001, 2004, 2005), 「전국민여행실태조사」.
한국관광연구원(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관광정보지식시스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3),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충남 서북부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Ahlburg, Dennis A.(1982), How Accurate are the US Bureau of the Census Projections of Total Live Births?, *Journal of Forecasting*, Vol. 1.
van der Borg, Jan(1994), Demand for City Tourism in Europ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1, No. 4, 832.
Yoon, Jihwan, Elwood L. Shafer(1996), Models of U.S. Travel Demand Patterns for the Bahamas, *Journal of Travel Research*, Sumr., Vol. 35, No. 1, 50.